

구빈원을 폐하라: 사드와 18세기 말 프랑스의 구빈원에 대한 연구*

이 총 훈
(한양대학교)

◆ 국문초록

사드의 소설 작품에 등장하는 리베르탱들은 빈민을 마주할 때 느끼게 마련인 연민과 동정이 자연스러운 감정이 아니며, 이런 취지로 구제제 프랑스 곳곳에 세워진 구빈원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18세기 말 프랑스의 사상가와 행정가들은 구제제 구빈원의 폐해를 다룬 보고서를 출판하면서, 구빈원이 빈민구제의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빈곤을 심화시켰음에 주목한 바 있다. 아울러 프랑스혁명 이후 입법의회는 구빈원 시설과 재산의 국유화를 시도했으며, 극단적으로 구빈원과 자선시설의 완전한 폐지를 주장하기에 이른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본 논문은 사드의 구빈원에 대한 거부가 동시대 사람들이 구제제 구호체계에 제기한 비판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특히 프랑스혁명기 의회를 장악한 혁명세력은 구빈원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대신, 소규모 구제원이나 가택 치료의 방안을 내세워 행정을 간소화하고 비용을 줄이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구제원이나 가택 치료의 구체적인 안이 사드의 소설에 직접 등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드의 주인공들이 사회의 빈곤 문제를 철학, 정치, 경제 등 다양한 입장에서 조망하면서, 새로운 공화국의 이상과 구체적인 사정에 맞는 새로운 구호체제가 필요함을 논리적으로 역설했음을 기억해야 한다. 사드는 혁명의 힘이 약화될 때 구제제의 구빈원 제도가 재건될 것임은 물론, 이미 프랑스혁명이 추방했던 종교와 전제주의 역시 구빈원과 함께 복귀할 수 있음을 경계했다. 그리고 적어도 이점에 대한 사드의 우려가 틀리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주제어 : 도나시앙 알퐁스 프랑수아 드 사드, 프랑스혁명, 피코 지부, 미셀 푸코, 구빈원

* 이 논문은 2016년 PRIME 인문학 진흥사업 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I. 서론

사드가 1772년 마르세유에서 매춘부 독살미수혐의로 사형선고를 받고 미올랑 요새에 투옥된 후, 탈옥과 도피, 체포를 반복하다 결국 1778년 뱅센 감옥에 수감되었던 일화는 잘 알려져 있다. 사드는 1784년에 바스티유로 이감되었다가, 1789년 프랑스혁명 직전인 7월 4일에 다시 샤랑통으로 옮겨진다. 샤랑통 구빈원은 원래 광인들을 수용할 목적으로 세워진 자선기관이지만 구체제의 대표적 악폐 중 하나인 봉인장(lettre de cachet)을 통한 강제 구금이 이루어졌던 곳이기도 하다.¹⁾ 사드는 1790년 3월 13일 입법의회가 왕의 봉인장을 파기하는 칙령을 공포한 뒤, 같은 해 4월 2일에 샤랑통을 나서면서 비로소 자유를 누리게 된다.

그러나 사드는 고작 십여 년 간 그 자유를 누릴 뿐이다. 1801년에 『누벨 쥐스틴』과 『질리에트 이야기』의 저자 사드는 다시 체포되어 생트펠라지, 비세트르를 거쳐 1804년 4월 27일에 다시 샤랑통에 수감된 후, 이번에는 1814년에 사망할 때까지 다시 그곳에서 나오지 못했다.

사드가 샤랑통을 나오면서 자유를 얻고, 그 자유를 다시 샤랑통에 수감되면서 영원히 잃었다는 점은 그저 우연한 일일 뿐이다. 그런데 사드의 운명과 그가 두 번 수감 생활을 했던 샤랑통의 운명이 기이하게도 엇갈린 길을 갔다는 점을 그저 지나쳐버릴 수 있을까? 사드가 샤랑통 문을 벗어나면서 짧은 기간이나마 자유를 누리는 동안, 이 자선기관은 프랑스혁명기 종교 교단 폐쇄 조치 및 이에 따른 재정악화로 문을 닫았다(혁명력 3년 수확월 12일), 테르미도르의 반동으로 로베스피에르가 실각한 뒤 들

1) Jean Imbert, *Le Droit hospitalier de la Révolution et de l'Empire*, Paris, 1954, p.119 참조. 본 논문에서 말하는 구빈원은 프랑스어 hôpital의 번역어이다. 1690년에 나온 푸르티에르 사전에 따르면 이 용어는 “종교적이고 자선을 위한 기관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받아들여 극빈을 덜어주기 위한 곳”으로 정의되었다. 물론 구빈원은 설립 목적에 따라 건강한 극빈자를 수용하는 곳도 있었고, 병든 극빈자를 수용하는 곳도 있었으며, 양쪽을 모두 수용하는 경우도 흔했다. 이 장소는 hôpital général, hôpital, hospice, dépôt de mendicité 등 여러 이름으로 불렸고, maison de force 와 prison도 여기 포함된다(François Lebrun, art. Hôpitaux, dans *Dictionnaire européen des Lumières*, éd. Michel Delon, PUF, 1997, p.554 참조).

어선 총재정부 시기, 1797년(혁명력 5년 목월(牧月) 27일)에 광인수용시설로 인가받아 다시 문을 열었다.²⁾ 미셸 푸코는 『광기의 역사』에서 사랑통 자선기관을 여러 차례 언급했는데, 이곳은 1645년 5월 10일에 생장드디의 수도사들이 “사랑통에 정착”했을 때 세운 구빈원으로, “가난한 병자와 특히 정신이상자를 수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³⁾. 그러므로 사드는 봉인장⁴⁾을 통해 사랑통에 갇혔다가, 나중에는 광인으로 낙인찍혀 그곳에 다시 갇혔다. 사드가 어떻게 생각했건 프랑스혁명은 그에게 일시적인 자유를 허락했지만, 혁명정신이 퇴조함에 따라 사드는 그렇게 얻은 자유를 다시 빼앗겼다.

그러므로 사드가 자신의 작품에서 구빈원에 대한 그의 증오를 숨기지 않는 것도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는 1789년 고등법원의 변호사였던 마통드 라 바렌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태, 타락, 천박한 취향, 음행, 식탐에, 명예가 실추되어 세상을 떠나야 했던 필요성이야말로 자선 수도사가 가졌던 소명의식의 유일한 동기였음이 확실합니다. 이 원칙이 받아들여지면 그런 흉악한 자들이 운명을 맡을 때 더 없이 큰 위험이 초래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죠”⁵⁾라며, 사랑통 구빈원에 대한 분노를 감추지 못한다. 과연 사드가 그려내는 악인들은 구빈원과 자선기관의 폐해를 지적하

2) 총재정부 시기 사랑통 자선기관의 재건에 관해서 Jean Imbert, *op. cit.*, pp 121-122 참조. 사랑통에 대한 행정명령 1조는 다음과 같다. “Art. 1. L’hospice de la Charité de la commune de Charenton, près Paris, connu sous le nom de refuge pour les fous, sera rendu à sa première destination ; il sera fait, en outre, toutes les dispositions nécessaires pour y établir un traitement complet pour la guérison de la folie.” (*Ibid.*, p. 120, n° 56)

3) Michel Foucault, *Histoire de la folie à l’âge classique*, Gallimard, 1972, p 135. 그러나 푸코에 따르면 이 구빈원은 “1640년에 생장드디의 수도회가 창설된 이래 유럽에서 줄기차게 증가한 자선을 위한 구빈원과 전혀 구별되지 않았다”(*Ibid.*) 사랑통 구빈원의 창설에 대해서는 미셸 푸코, 위의 책 63쪽을 참조.

4) 미셸 푸코는 1692년부터 구빈원 수용의 가장 빈번한 근거였던 것이 왕의 봉인장이었음을 지적한다. “가족이나 주변사람이 국왕에게 수용을 청원하고 이에 대한 국왕의 윤허가 떨어지면 대신 한 사람이 부서한 봉인장이 발부된다. 이러한 청원사례들의 일부에는 의료 증명서가 첨부되곤 하지만 실제로 의료 증명서가 첨부되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었다” (Michel Foucault, *Ibid.*, p.142).

5) Réponse de Sade à M. Maton de la Varenne, le 3 octobre 1789, dans Maurice Lever, *Donatien François, marquis de Sade*, Paris, Fayard, 2003, p.865.

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심지어 이곳을 모조리 불살라버리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히기까지 한다. 『줄리에트 이야기』 4권에서 이탈리아 여행을 떠난 여주인공 줄리에트는 로마에서 보르게제 공부인을 만나게 되는데 두 사람은 이내 과도한 음욕과 죄악에 대한 취향이 일치함을 알아차린다. 마음을 터놓고 육체적 향락에 빠진 두 여인은 로마의 “모든 구빈원과 모든 자애소를 불태우고자”⁶⁾ 하는 욕망을 숨기지 않으며, 이를 실행에 옮긴다.

Le projet horrible du lendemain s'exécuta. Olympe [la princesse de Borghèse] et moi, placées sur une terrasse, nous nous branlions en voyant la rapidité de l'incendie. Les trente-sept hôpitaux furent consumés, et plus de vingt mille âmes y périrent “Oh! sacedieu!” dis-je à Olympe, en déchargeant au spectacle enchanteur de ses crimes et de ceux de ses complices, “qu'il est divin de se livrer à de tels écarts! Inexplicable et mystérieuse nature, s'il est vrai que ces délits t'outragent, pourquoi donc m'en délectes-tu?” [...] L'incendie dura huit jours [...]. (III : 847-848)

이튿날 이 끔찍한 계획이 실행에 옮겨졌다. 올랭프와 나는 테라스에 자리를 잡고, 화재가 신속하게 번져가는 것을 보면서 서로 자위를 했다. 서른 일곱 개의 구빈원이 훌쩍 타버렸고, 그곳에 있던 이만 명 이상이 죽었다. 아! 제기랄! 나는 올랭프와 공모자들의 범죄가 만들어낸 이 황홀한 광경을 보며 사정하면서 그녀에게 말했다. 이런 탈선에 빠져본다는 건 정말 멋진 일이야! 이해할 수 없고 신비로운 자연이여, 이러한 위반이 자연에 반하는 것이라면 도대체 너는 왜 내가 그런 위반을 저지러 때 즐거움을 주는 것이냐? [...] 화재는 일주일이나 계속되었다 [...].

위의 내용만 본다면 사드가 구빈원에 수용되었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제의 자선시설에 대한 개인적인 혐오를 드러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종교, 구원, 미덕, 자선과 같은 전통적인 모든 선(善)을 조롱하고 거부하면서 가장 강력한 방식으로 악(惡)을 실천하고자 하는 사드의

6) Sade, *Histoire de Juliette, Œuvres*, éd. Michel Delon, t. III, Bibliothèque de la Pléiade, 1998. p.831. 이하 위 판본에서 인용할 경우 본문 뒤에 권과 페이지만 기록하기로 한다.

악한(惡漢)들에게 구빈원과 자선시설 만큼 받아들일 수 없는 제도도 없다.

그런데 자유의 몸이 된 사드가 혁명기 파리의 마흔여덟 개 지부 중 하나였던 피크 지부(현재의 방돔-마들렌 지역)에서 투표권을 가진 능동적 시민의 자격으로 정치에 입문하면서 썼던 보고서 하나를 읽어본다면, 구빈원과 자선시설에 대한 비판이 그저 사드의 개인적인 혐오에서 비롯한 것만은 아니었음을 볼 수 있다. 이 문서는 1792년 10월 28일에 그의 손으로 작성된 「자선시설 행정회의에 제출한 보고서」로 피크 지부의 총회는 사드가 제출한 내용을 경청한 뒤, 이를 “승인하고 인쇄하여 파리의 다른 마흔 일곱 개 지부에서 열람하도록 결정했다”⁷⁾. 구빈원 “조직 전반에 팽배한 결함”을 시정하고 “자선시설 경영”의 개선을 요구⁸⁾하는 내용의 위 보고서를 사드가 직접 썼고, 또한 그의 안(案)을 피크 지부 총회가 승인했음을 본다면 구빈원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이 비단 사드 개인의 입장에 국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물론 20세기 초반 아폴리네르와 혁명적 초현실주의자들이 과도하게 부각했던 것처럼 혁명기 사드의 정치참여가 구체제에의 증오와 새로이 건설된 공화주의에 대한 열성적인 신념에서 비롯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한 예로 모리스 르베는 사드가 이 시기 과격공화파와 “타협”하지 않을 수 없었음을 강조한다. 피크 지부 입회 후 스스로 귀족 성 드(de)를 버리고 루이 사드로 서명하고 자신이 구체제에서 바스티유에 투옥되었던 경력을 내세웠던 것이 그 증거이다.⁹⁾ 그렇지만 20세기 초반에 사드를 재발굴하면서 자유에 대한 신념과 진보적인 정치적 입장을 옹호했던 초현실주의자들의 의견에 과도한 해석이 있었던 만큼, 혁명기 사드의 피크 지부에서의 정치 활동이 단지 위선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입장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그 한 가지 사례로 구빈원의 문제를 연구한다. 구빈원과 자

7) Sade, *Observations présentées à l'Assemblée administrative des hôpitaux*, dans *Œuvres complètes de Sade*, t. VIII, Paris, Jean-Jacques Pauvert, 1966, p.239.

8) *Ibid.*, p.238.

9) 모리스 르베는 사드가 “모든 면에서 과격공화파와 거리가 있었다. 출생, 재산,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사고방식도 달랐다. 평등주의의 집단주의 이데올로기만큼 그의 천성과 반대되는 것도 없었다”고 말한다(Maurice Lever, *op. cit.*, ch. 22).

선시설은 결코 빈곤의 구체책이 아니며, 종교와 전제군주의 지배체제를 강화하는 수단에 불과했다는 비판은 사드 개인의 입장이기에 앞서 18세기 내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문제였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사드 소설에 등장하는 악한들은 단지 혐오와 반감 때문에 구빈원을 반대한 것만은 아니다. 그들이 구빈원의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논리적이고 철학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그 이유이다. 그의 소설에서 보이는 주인공들의 극빈자에 대한 증오는 그저 구체제에서 특권을 누렸던 한 귀족의 퇴행적인 분노로만 볼 수 없다. 사드에게 구빈원은 개인의 자유를 구속하는 임의적인 권력이자, 종교와 폭군이 각자의 지배를 공고하게 하기 위한 야합의 산물이자, 사회 밑바닥으로부터 변화와 개혁에 대한 빈곤층의 갈망이 결국 폭발하게 되는 도화선과 같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드의 구빈원은 옛 특권층의 점증하는 불안이 반영된 곳이었다. 또한 프랑스혁명 이후 새로운 공화정부 역시 구빈원의 딜레마에 맞닥뜨린다. 극빈층의 불만을 일시적이거나 잠재우고 그들을 사회바깥에 격리하기 위해 여전히 구빈원을 인가하고 지원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새로운 공화정부는 극빈자들을 위한 어떤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혁명기 입법의회에서 토론되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사드는 이 문제를 결코 소홀히 생각하지 않았으며, 그의 소설에서 터무니없이 과장되어 나타나고 있기는 해도, 그가 이 문제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살펴보자.

II. 구체제 구빈원의 폐해

구체제 구빈원은 사회의 점증하는 빈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가? 물론 자선시설의 설치가 빈곤의 완벽한 해결책은 아닐지라도, 빈곤으로 인한 인민의 고통을 최소한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차선책은 되지 않을까? 이 시대 구빈원 및 자선시설의 운영주체가 대개 종교 교단이었음에 주목해본다면, 이 시설이 구체제 정부의 부족한 빈곤 구체책을 보완하는 기능을 가졌음은 물론 정부의 견제를 받고 갈등을 빚기도 했던 이유를 알 수 있다. 요컨대 국가가 감당할 수 없었던 빈곤의 문제를 종교 교단이 떠맡게

되지만, 동시에 국가는 구빈원 시설의 운영을 담당했던 종교 주체의 전횡과 남용을 견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실 구체제 내내 국가권력은 구빈원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종교 교단을 관리하고 통제하는데 열을 올렸다. 첫 번째 이유는 이 시기 중상주의 정책을 채택하면서 도시는 비대해지는 반면 농촌은 공동화되었기 때문이다. 18세기 중반 다수 백과사전편집자들이 채택한 중농주의는 상업을 통한 부의 과도한 집중과 독점이 토지 생산 감소로 이어져 농촌 경제를 붕괴시켰던 데 대한 반발이기도 했다. 농촌의 극빈자들이 도시로 몰려와 거대한 빈곤층을 형성하게 되었으니, 이들을 수용했던 구빈원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결국 새로운 구빈원과 자선시설의 건립이 요구되었지만, 18세기 프랑스 국왕들은 구빈원 건립에 소극적이었다¹⁰⁾. 프랑스혁명 직전에 국왕 루이 16세는 구빈원 신축을 명령하기에 앞서 과학 아카데미에 구빈원 조사위원회를 조직하면서 이 문제를 공론화했는데, 이는 당시 구빈원의 필요와 폐해를 주장하는 입장이 첨예하게 맞섰기 때문이다.¹¹⁾

가난의 구제와 국가의 번영을 위해 구빈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극빈층의 존재가 사회의 결속을 해친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운다. 부자는 자신에게 봉사해줄 가난한 자를 필요로 하며, 따라서 “가난한 자가 병에 걸려 부자를 위해 노동할 수 없게 될 때 그를 돌보지 않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¹²⁾. 만일 국가가 가난하고 병든 자를 돌보지 않는다면 “모든 극빈자들은 그들이 봉사하는 강자가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¹³⁾게 될 테니,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반면, 구빈원의 폐해를 지적하는 입장에 선 논자들은 이 종교시설이 “인민을 나태에 빠뜨리고 왕국의 주민이 반드시 가져야 할 활기와 근면을 저해”¹⁴⁾한다고 주장한다.

10) Jean Imbert, art. Hôpitaux, Hôpitaux généraux, *Dictionnaire de l'Ancien Régime*, sous dir. Lucien Bély, PUF, 1996, p.842.

11) 이 문제에 대해서 Jacques Bescond, *Une construction de la clinique. Le savoir médical au XVIII^e siècle*, Paris, L'Harmattan, 2010, pp.408-416을 참조.

12) Chambon de Montaux, *Moyens de rendre les Hôpitaux plus utiles à la nation*, Paris, 1787, p.14.

13) *Ibid.*, p.17.

14) *Ibid.*, p.4.

물론 위중하고 격리를 필요로 하는 병에 걸린 가난한 사람들을 수용할 구빈원은 필요하지만, 이 시기의 구빈원은 대부분 건강한 극빈자와 그렇지 않은 극빈자를 동시에 수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니, 이곳에 수용된 건강한 극빈자마저 비위생적인 환경과 열악한 치료환경 때문에 오히려 전염병에 노출되었음은 물론이다. 미라보 백작이 “비세트르가 구빈원이자 감옥인 줄은 알았지만 이 구빈원을 지은 것이 병을 생기게 하려는 것이고 이 감옥을 지은 것이 죄인을 생기게 하려는 것인지는 전혀 몰랐다”¹⁵⁾는 말을 기억해야 한다.

최악의 재정위기를 겪었던 루이 16세 치세 말기에 제출되었던 대부분의 구빈원 개혁안은 시설의 합리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다. 구빈원은 제한된 비용으로 재정을 충당해야 하니 수용된 극빈자들이 좋은 대우를 받을 리 없다. 따라서 유일한 해결책은 구빈원 행정 관리 체계의 개혁뿐인 것처럼 보였다. 한 예로 드칼드 신부는 자선과 구휼(救恤)을 강조하는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쓴 『구빈원 악폐에 대한 논고』에서 당시 구빈원에 수용된 극빈자들이 놓였던 열악한 상황을 개탄한다. 드칼드 신부가 보기에 구빈원 운영주체들의 전횡과 포탈(逋脫)이 가장 큰 문제였다.

Les tables des Officiers dans tous les Hôpitaux sont très-bien servies, ils y ont des logemens commodes, & dans plusieurs, les Pauvre n'ont que du gros pain, peu ou point du tout de viandes, & de mauvais légumes : aussi voit-on dans l'embonpoint des Religieuses & des Officiers des Hôpitaux, le produit de la substance de la veuve & de l'orphelin, & dans les figures décharnées, pâles & languissantes de ces malheureux, l'avidité des sang-sues qui les entourent.¹⁶⁾

어느 구빈원에 가보나 관리자들과의 식탁은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지고 그들에게는 편한 숙소가 제공되지만, 여러 구빈원에 수용된 빈자들은 질 나쁜 빵이나 먹으며 고기는 없다시피 하고, 형편없는 채소만을 제공받는다. 그래서 구빈원의 관리자들과 수녀들은 과부와 고아의 음

15) Mirabeau, *Mémoires littéraires et politiques de Mirabeau*, Bruxelles, Louis Hauman et cie 1835, p.120.

16) Abbé de Recalde, *Traité sur les abus qui subsistent dans les hôpitaux du Royaume, et les moyens propres à les réformer*, Paris, Didot, 1786, p.25.

식을 취해 살이 올라 있는 반면, 이 불행한 자들의 야위고, 창백하고, 우울한 모습을 보면 그들이 탐욕스러운 거머리 같은 자들에 둘러싸여 있음을 보게 된다.

구빈원 운영의 폐습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고, 드칼드 신부는 이를 “사치, 무종교, 사적이해를 따를 때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¹⁷⁾이라고 주장한다. 초기 기독교인들이 구빈원을 운영했는가? 그들은 “자비를 행할 것을 명령하는 복음의 성스러운 진리에 감화되어 노동과 청빈의 생활을 영위했고, 필요로 하는 것이 적었으니 형제들의 고통을 쉽게 덜어줄 수 있었다”¹⁸⁾. 그는 “환대(hospitalité)”를 성스러운 의무로 규정했던 초기 기독교의 “자연스러운 소박함이 타락”¹⁹⁾했으니 구빈원의 악폐가 생긴 것도 당연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기독교 “초기의 순수했던 도덕과 극빈자에 대한 동정적인 사랑”²⁰⁾을 회복하는 것이 관건이다. 구빈원 운영은 철저히 기독교 도덕을 따라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가 ‘청렴’ ‘처벌’ ‘정의’ ‘사기’의 단어들 수없이 되풀이하는 까닭이 여기 있다²¹⁾. 결국 드칼드 신부는 구빈원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서서, 이 자선시설이 빈곤층을 사회로 재통합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를 바란다.

[...] la classe la plus malheureuse, étoit cependant celle la plus précieuse à l'Etat pour la culture, les arts & la population ; cette idée n'est pas nouvelle, ainsi il seroit inutile de la développer davantage ; on ne doit donc pas laisser dépérir la partie robuste qui, parmi nous, supporte le plus rude fardeau, qui rend le plus de services à la Société,

17) *Ibid.*, p.7.

18) *Ibid.*, p.8.

19) *Ibid.*, p.2.

20) *Ibid.*, pp.8-9.

21) “Si la probité éprouvée, & soutenue par toutes ces précautions, se laissoit encore séduire, qu'on emploie les châtimens ; qu'on livre à la justice ceux qui oseroient se rendre coupables de quelques friponneries ou malversations, leurs fauteurs & adhérens, pour être punis suivant la rigueur des Loix ; que les prieres les sollicitations, une funeste condescendance pour les préjugés ne puissent arracher du supplice les monstres qui dévoreraient le Pauvre” (*Ibid.*, p.161).

& à laquelle nous devons tant de reconnaissance & de commisération ; on doit au contraire travailler à tout ce qui peut procurer le maintien de sa force physique, afin de prévenir la dégradation des races.²²⁾

[...] 그러나 가장 불행한 계급이 문화와 기술, 인구를 위해서는 국가에 가장 중요한 계급이었다. 이러한 생각은 새로운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한층 더 개선하는 것은 불필요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 가운데 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며, 사회에 가장 큰 봉사를 하고 있고, 우리가 감사와 동정의 마음을 가져야 할 사회의 건강한 부분이 쇠약해지도록 놓아두어서는 안 된다. 반대로 국민이 쇠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의 육체적 힘을 유지해줄 수 있는 모든 일에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그러나 다종 출신 건축가로 나중에 국민의회 내무부 산하 국가재산 환수 평가인 자리에 오를 클로드 필리베르 코케오는 드칼드 신부의 논고보다 1년 뒤인 1787년에 『대도시 구빈원 설치안에 대한 시론』을 출판하여 정부가 극빈층의 구호에 적극적으로 나설 의무가 없음을 분명히 한다. 그는 역사적으로 프랑스의 빈민 구호 활동은 “단순히 신앙심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적 기관이 담당해왔으며, 정부와 행정부가 보편적인 목적으로 설치한 자선기관은 없다시피 했음”²³⁾을 지적한다. 따라서 “국가는 추가로 구호가 필요할 때, 절대적으로 구호가 필요하거나 상황에 따라 보호를 제공”²⁴⁾할 수 있을 뿐, 보편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구빈원 및 자선시설의 설치에 적극적일 필요는 없다.

코케오의 의견이 자애와 애덕을 우선시하는 드칼드 신부의 입장과 대립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코케오가 극빈층 구호의 필요성 자체를 무시했다고 보서는 안 된다. 국가의 구호사업은 구체제 방식의 구빈원과 자선시설의 확충으로 축소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한 국가의 부의 증대와 번영은 극빈층의 수용과 감금이 아니라, 그들에게 사회에서 자활할 수 있는 노동의 기회를 제공할 때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드칼드 신부와 코케

22) *Ibid.*, p.30.

23) Claude-Philibert Coquéau, *Essai sur l'établissement des hôpitaux dans les grandes villes*, Paris, 1787, p.10.

24) *Ibid.*, p.11.

오는 푸코의 표현을 따르자면 “빈민의 도덕적 복권(réhabilitation morale du Pauvre)”²⁵⁾이라는 점에서 의견이 일치한다. 18세기 후반이 되면 “가난한 주민을 격리하고 자선을 베풀으로써 빈곤을 퇴치할 수 있다”²⁶⁾는 생각에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한다. 달리 말하면 극빈자의 격리를 토대로 한 고전주의적 구호 시스템이 실제로 빈곤 퇴치에 공헌하기는커녕 그 자체가 “빈곤화의 원인”²⁷⁾이 되었음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III. 프랑스혁명기 사드의 구빈원 정책 보고서

이제 프랑스혁명의 발발과 함께 프랑스 구체제의 구호 시스템이 거의 와해되기에 이르렀음을 지적할 차례이다. 구체제의 사적 자선시설로서 구빈원은 주로 유복한 귀족 계급의 후원과 종교 단체의 봉사로 운영되었지만, 혁명 이후 귀족들의 해외 망명과 종교단체의 폐지로 위기에 처한다. 더욱이 즉각 처리해야 할 사업이 산적했기 때문에 혁명 초기 국민의회는 빈민구호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²⁸⁾ 1792년 8월 18일의 입법의회에서 가결된 ‘종교단체해체’ 법안은 종교 단체가 소유했던 구빈원 재산의 몰수와 특혜의 폐지로 즉각 이어졌다²⁹⁾.

피크 지부에서 정치활동을 시작한 사드가 처음으로 작성한 정치 논설 「구빈원 행정회의에 제출한 보고서」를 쓴 시기가 바로 이 때이다. 이 보고서에서 사드는 파리 대부분의 지부에서 구빈원 행정회의 위원으로 의사와 외과의사만을 임명했던 점을 비판한다. 요컨대 구빈원의 행정위원회

25) Foucault, *op. cit.*, p.428.

26) *Ibid.*, p.430.

27) *Ibid.*

28) Voir Jean Imbert, *Le Droit hospitalier de la Révolution, op. cit.*, p.29.

29) Voir *Ibid.*, p. 51. 그러나 장 앙베르에 따르면 구빈원을 운영하는 경우 비선서사제라도 추방되지 않고 업무를 계속 수행했다. “Nombre d’hôpitaux semblent avoir continué à faire assurer le service divin par un prêtre insermenté, faute de prêtre constitutionnel. Sur l’invitation des sœurs, les fidèles des paroisses environnant l’établissement se rendent plus volontiers aux offices de la chapelle de l’hôpital qu’à ceux qui sont célébrés par leur curé assermenté.” (*Ibid.*, p.63)

가 국가에서 위촉한 전문경영인력이 아닌 “수많은 개인적인 이유로 과거의 결함을 전력을 다해 보존, 유지할 목적을 가진 개인들”³⁰⁾로 이루어진다면 구체제 구빈원의 폐습이 고스란히 반복되리라는 지적이다. 미셸 푸코는 『임상의학의 탄생』에서 이 시기 “의사들의 조합 폐지와, 의사협회의 폐지, 의과대학을 다른 제도로 대체”³¹⁾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음을 지적한다. 특히 “의사들이 조합의 권리를 옹호”³²⁾하고자 했던 데 대한 비판이 높았다. 구빈원의 운영을 조합의 개별이익에 봉사하는 의사들과 외과의사들이 맡는다면 새로운 의학지식의 적용이 늦어질 뿐 아니라, 순전히 인류애를 위한 봉사여야 할 그들의 자선활동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리라는 점이 자명했기 때문이다. 나중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하나의 행정기구가 다수의 환자를 관리하다보니 조직이 지나치게 비대해지고 지나치게 방대해져서 필요시 즉각 대응할 수 없었던”³³⁾ 대형 구빈원 대신 자택 구호(secours domiciliés) 및 개별 진료의 효율성이 강조되었다. 뒤퐁 드 느무르는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면 의사들, 외과의사들, 간호사들에 치러야 할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역설했다.³⁴⁾

하지만 사드가 구빈원 제도의 개혁의 필요성에 찬성했더라도, 이 보고서에서 구빈원 시설의 완전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아래의 두 번째 조항에서 사드는 자신의 구빈원 비판과 “인류애와 선행의 감정”이 전혀 모순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La Section des Piques n'adopte point l'idée d'une maison de santé par Section : nous sommes positivement chargés par elle de nous retirer plutôt que d'adhérer à un mode dont les inconvénients sont si faciles à développer, et que nous vous détaillerons quand vous l'exigerez.

30) Sade, *Observations présentées à l'Assemblée administrative des hôpitaux*, dans *Œuvres complètes de Sade*, t. VIII, *op. cit.*, p.236.

31) Michel Foucault, *Naissance de la clinique*, PUF, 1963, p.46.

32) *Ibid.*, p.45.

33) *Ibid.*, p.40.

34) Voir Pierre-Samuel Dupont de Nemours. *Idées sur les secours à donner aux pauvres malades dans une grande ville*, Philadelphie [Paris, Moutard], 1786, pp.26-27.

Cependant les sentiments d'humanité, de bienfaisance que la Section professe ouvertement, l'engagent à tolérer dans son sein un hospice provisoire, dans lequel seront dix ou douze lits au plus ; qui ne servira que de dépôt momentané, et duquel les malades seront aussitôt transportés dans les hôpitaux destinés à les recevoir.³⁵⁾

피크 지부는 지부별 일개 의료소 설치안을 수용하지 않는다. 지부로부터 우리가 받은 임무는 불편의 증가가 볼을 보듯 뻔한 방법에 동의하느니 이를 포기하는 것이다.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요청할 경우 상세히 설명할 것이다. 그러나 피크 지부가 공개적으로 인류애와 선행의 감정을 공언하는 바, 지부 내 임시 구제원 설치안은 받아들인다. 구제원은 환자를 일시적으로만 수용하게 될 열에서 열두 개의 침상을 갖추며, 일시 수용된 환자들은 빠른 시간 안에 이들을 수용할 목적으로 세운 구빈원으로 이송된다.

사드는 파리의 마흔여덟 개 지부에 구빈원을 하나씩 설치하는 대신, 긴급한 환자의 수용이 가능한 “열에서 열두 개의 침상을 갖춘” 구제원(hospice)을 마련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대형 구빈원 대신 소규모의 구제원을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은 프랑스혁명 직전에 출판된 텔레스 다코스타의 논문 『왕립 구제원 개요』에서도 이미 확인된다. 그는 “대단히 거대한 구빈원에서는 환자들이 신속하게 적절한 구호를 얻을 수 없음”을 지적하면서 “몇 개의 침상을 갖춘 의료소를 여러 개 개설”할 필요가 있는데 그는 이 의료소를 “구제원이나 오텔디외와 같은 혐오감을 주는 이름 대신 구제원이라고 부르”³⁶⁾자고 제안했다.

[...] les charités [...] seroient [nombreuses] bien davantage, s'il y avoit des Hospices pour les Paroisses ; les épargnes des sommes immenses qu'il en coûteroit pour la construction de quatre grands Hôpitaux ; enfin les suppléments donnés par le Roi, seroient assez considérables, sans doute pour subvenir à la dépense journaliere des Hospices, à l'entretien des bâtimens, & à toutes les autres dépenses de

35) Sade, *Observations...op. cit.*, p.237.

36) Tellès-Dacosta, *Plan général d'hospices royaux*, Paris, 1789, p.4.

nécessité. [...]

En créant ces nouveaux établissements, je croirois qu'il seroit indispensable de bannir à jamais les noms d'Hôtel-Dieu & d'Hôpital. Ces noms qui, dans l'opinion publique, annoncent la misere & la derniere pauvreté, sont devenus avilissants, & ne servent qu'à éloigner, par un sentiment naturel, tous les Sujets qui ont le plus besoin de secours & d'assistance.³⁷⁾

각 교구마다 구제원을 갖췄다면 더욱 많은 자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커다란 구빈원을 네 군데 짓는데 들어가는 엄청난 비용이 절약된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더해 국왕이 추가로 하사하신다면 구제원에 필요한 비용과, 건물의 유지, 필요한 다른 비용을 지원하는 데 충분할 것이다. [...]

이러한 새로운 기관을 만든다면 호텔디외와 구제원과 같은 이름을 영원히 추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중이 생각하기에 이런 이름들은 빈곤과 극빈을 연상시키기에 격이 떨어져버렸고, 자연스럽게 구호와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는 모든 신민들은 그곳에 가는 것을 꺼리게 되었다.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 구체제 말 빈민구호 정책은 기독교적 이상주의를 버리고 공리주의를 선택한다. 구체제의 구빈원은 타락한 귀족들이 죽기 전에 그들이 지상에서 지은 죄를 대속하고자 종교 단체에 증여한 재산으로 운영되었다. 반면 종교 단체는 애덕과 자비의 실천을 명목으로 그들이 맡은 자선시설을 방만하고 무절제하게 운영했다고 비판을 받았다. 이런 점에서 18세기 후반 구빈원 제도의 개혁을 모색했던 대부분의 행정가 및 사상가들은 구빈원의 폐지 또는 광범한 축소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입법의회 시기 사드가 내놓은 구빈원 개혁안도 전적으로 이들의 입장과 일치한다.

37) *Ibid.*, pp.5-6.

IV. 빈곤과 연민

그러나 개인이 불행에 처한 타인을 바라볼 때 연민의 마음을 품고, 그를 구제하고자 할 때 이는 마음의 자연적인 움직임에 따르는 것이 아닐까? 구제제 구빈원이 심각한 악습과 폐해를 가졌다고 극빈층을 위한 최소한의 자선시설도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가졌다고 생각되는 자연스러운 연민의 감정을 부정하고 포기하는 일이 아닌가? 한 예로 디드로와 그림과 함께 『문예통신 *Correspondance littéraire, philosophique et critique*』을 주재하고 『두 인도의 역사』의 저자이기도 했던 레날 신부는 부가 양극화된 사회에서 부자들은 동정과 선행의 행동의 원천이 되는 연민의 감정을 잃으려고 한다고 비난한 바 있다.

Les gens riches n'ont pas manqué d'adopter un système qui leur endurcissoit tranquillement le cœur, & les dispensoit de la compassion & de la bienfaisance. [...] les riches & les grands [...] s'endorment sur les labeurs du pauvre, ferment leurs entrailles à ses gémisséments, & détournent leur sensibilité de dessus leurs vassaux pour la porter toute entiere sur leurs chiens & sur leurs chevaux.³⁸⁾

부자들이 태연하게 마음을 무더지게 하고 동정과 선행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체계를 받아들인 것도 당연했다. [...] 부자들과 위인들은 가난한 자의 고된 노역위에서 잠들고, 가난한 자의 신음에 마음을 담아걸고, 예측된 자들 위에 서서 감정을 다른 곳으로 돌려 그들이 데리고 있는 개와 말에게 쏟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가 빈민구제를 맡아야 하는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미셸 푸코는 구빈원과 자선시설을 놓고 “프랑스혁명 직전 몇 해 동안 논쟁이 끊이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 의무’는 무엇이 됐든 ‘사회가 담당할 의무’이자 결국은 국가가 담당할 의무라고 생각하면

38) Guillaume-Thomas François Raynal, *Histoire philosophique & politique des Etablissemens & des commerces européens dans les deux Indes*, t. V, Amsterdam, 1773, p. 437.

서 국가가 모든 구제시설을 통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 그러나 대부분은 이런 대규모 구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경제이론가들과 자유주의자들은 오히려 ‘사회적 의무’가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담당할 의무’이지 사회 자체의 의무는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어떤 구제의 형태가 가능한지 결정하려면 사회 속의 개인을 동포들과 긴밀히 결합하게 해주는 연민, 동정, 연대의 감정의 본성이 무엇이고 한계는 무엇인지 명확하게 규정해야 했다.”³⁹⁾

중농주의 경제이론가이자 프랑스혁명기 입법의회 의장을 맡았던 뒤퐁 드 느무르는 『대도시의 병든 극빈자 구호에 대한 생각』에서 “[고통 받는 인간]이 고통 완화의 수단을 충분히 갖지 못한다면 그는 불평하게 되고, 친척과 친구들의 도움을 애원하기 시작한다. 친척과 친구들은 각자,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존재하는 연민이 생기면서 갖게 되는 최대에서 최소까지 자연적인 성향의 결과 그를 돕게 된다”⁴⁰⁾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구호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음을 지적한다.

Cette assistance a cependant des bornes ; elle est limitée par les moyens & par la volonté de ceux qui la donnent ; elle ne peut s'étendre au-delà du terme où les soins & la fatigue qu'ils prendraient leur sembleraient plus pénibles que la compassion qu'ils ressentent. Ce terme s'élève très haut, quelquefois jusqu'au sacrifice de la vie chez les cœurs sensibles & vivement affectionnés ; il a peu de portée chez les indifférents. Mais, si l'on pouvait s'exprimer ainsi, il présente toujours une sorte d'équation, en raison de laquelle l'assistance est donnée tant qu'elle paraît, à l'homme qui s'y dévoue, un moindre fardeau que celui de la compassion dont il est ému.⁴¹⁾

그러나 이러한 구호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구호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재력과 의지에 달려있으니 말이다. 구호는 그 사람들이 쏟는 정성과 피로가 그들이 느끼는 연민보다 더 고역이라고 생각되는 한계 이상으로 나아갈 수는 없는 법이다. 민감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나 강한

39) Foucault, *Histoire de la folie à l'âge classique*, op. cit., p.435.

40) Dupont de Nemours. *Idées sur les secours...*, op. cit., pp.10-11.

41) *Ibid.*, p.11.

애착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간혹 그 한계를 아주 높은 곳까지 끌어올리기도 하겠지만, 무관심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한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항상 일종의 방정식 같은 것이 제시된다. 구호에 헌신적인 사람은 그가 느낀 동정심의 무게보다 구호에 쏟는 무게가 덜 할 때 구호에 앞장서게 된다.

뒤퐁 드 느무르의 이러한 입장을 ‘박애’ 정신의 후퇴라고 보아야 할까? 오히려 구체제 구빈원의 설립 정신이었던 기독교적 의미의 ‘박애’ 대신 이성의 합리적 판단에 따라 효과적이고, 비용이 덜 들고, 실현가능한 빈곤구제 정책 및 국가 의료 체제의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미셸 푸코는 “테르미도르 반동 이전의 국민의회에서 자선기관과 구빈원의 폐지의 문제를 고민”했으며, “코뮌이 극빈 계급을 정치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꺼렸던 지롱드당은 국가의 구호활동을 즉각 철폐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음에 주목한다. 로베스피에르가 이끄는 산악당 역시 “구빈원이 빈곤을 제도화한다고 비판하면서 이를 완전 폐지”⁴²⁾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피크 지부에서 사드가 작성한 보고서는 바로 프랑스혁명 초기 구빈원과 극빈자 구호사업에 대한 국민의회의 다수 입장을 대변한 것이다. 이 시대에 공리주의를 따랐던 사람들은 국가가 자선사업을 벌이기에 앞서 우선 자선을 받아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뒤퐁 드 느무르는 “건강하고 건장한 자에게 적선을 하는 것은 자선이 아니라 자선을 잘못 생각하는 것”이며, 그러한 자선은 “사회에 필요 이상의 부담을 지우고 [...] 자선을 받는 자들을 타락 시키기 마련이다”⁴³⁾라고 잘라 말한다.

42) Michel Foucault, *Naissance de la clinique, op. cit.*, p. 42. 한 예로 국민의회의 지롱드 당원 장 마리 톨랑 드 라 플라티에르는 구호사업이 국가의 정책에 따라 일괄적으로 수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Je suis si peu d’avis des secours manuels que je les regarde comme le plus dangereux des systèmes, et il ne doit être adopté, même par raison d’économie, que dans l’impossibilité absolue de faire autrement. Il peut avoir lieu par bienfaisance ou souscription privée, mais le gouvernement ne doit pas s’en mêler ; il serait trompé et ne secourrait pas ou secourrait mal”(Jean Imbert, *Le Droit hospitalier de la Révolution, op. cit.*, p. 76 n° 29에서 재인용. 인용자의 강조).

43) Dupont de Nemours. *Idées sur les secours à donner aux pauvres malades dans*

그러므로 “사회가 개인에게 주어야 할 것은 그가 설령 건강하지 못한 자라고 해도 가족이나 [...] 가족을 대신할 수 있는 관계를 가졌다면 그가 건강을 회복하고 스스로 노동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가족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도움에 보충을 해주는 것뿐이다.”⁴⁴⁾

Un grand nombre de fondation ont été faites, il est vrai, pour la charité publique [...] Presque toutes les maisons de charité font des dettes, & réclament de tems en tems, pour les payer, les bienfaits du Gouvernement : & le nombre des infortunés est si considérable, que, tout imparfaits, tout repoussans même que sont les secours de la plûpart des hôpitaux, il reste encore une multitude d'individus qui ne peuvent y atteindre dans la plus grande partie du Royaume. [...]

Tout conduit donc à sentir combien il est important de ne charger la société envers les pauvres malades, que de la portion de soins & de dépense à laquelle leurs familles naturelles ou adoptives ne sauraient pourvoir.

Et ce n'est pas seulement le calcul rigoureux d'une juste & prudente économie, c'est encore la combinaison d'une bienfaisance éclairée & sentimentale, qui doit faire craindre de condamner aux salles d'un hôpital, & à la négligence inévitable de ses Infirmiers, celui qui peut avoir chez lui, ou chez un autre, un mauvais lit qu'il ne partage avec personne, & les soins d'une voisine qui ne soient point partagés.⁴⁵⁾

공공의 자선을 위해 수많은 기관이 설립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 거의 모든 자애소가 빛을 지고 있고 그 빛을 갠기 위해 정부의 지원을 요청한다. 가난에 시달리는 불운한 자의 수가 엄청나므로 구빈원 대다수의 구호가 부족하고 불쾌할지라도 왕국 대부분에서 구빈원에 들어갈 수 없는 여전히 많은 개인들이 남아 있다. [...]

그러므로 가난한 병자들에게 대해 사회가 친계이건 아니건 가족이 다 줄 수 없는 정성과 비용을 모두 맡을 수는 없다는 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une grande ville, op. cit., p.14.

44) *Ibid.*, p.16.

45) *Ibid.*, pp.17-18.

그저 엄격히 계산해서 정확하고 신중하게 돈을 아껴야할 뿐인 것만은 아니다. 선행을 할 때도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서 감정적으로 느끼기도 해야 한다. 그래야 자기 집이나 다른 집에 혼자 누울 수 있는 좋지 않은 침상과 혼자 누릴 수 있는 이웃의 정성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을 구빈원 병실로, 구빈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의 한결 같은 무관심에 맡기게끔 하지 않아야 한다.

뒤퐁 드 느무르를 비롯한 프랑스혁명 초기의 행정가 및 정치가들은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가능한 유일한 장소는 사회적 삶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공간인 가정”이며, 이 경우 “국가가 질병에 치르는 비용이 최소한으로 축소되며, 인위적인 처치 때문에 질병이 악화될 위험도 사라지고, 구빈원에서처럼 질병이 비정상적인 형태를 띠는 일도 막을 수 있다”⁴⁶⁾ 한 마디로 구빈원을 폐지하는 대신 자택 진료를 지원한다는 것은 “요지부동에, 관성에 찌들어서 오히려 빈곤의 원인이 되는 구빈원 시설”을 “개별 환자에게 항상 필요한 도움을 확실히 줄 수 있는” 방식으로 대체하는 일일 뿐 아니라,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충분히 이루어지는 선행을 받”게 될 때 환자는 비로소 타인의 “선한 동정의 마음”⁴⁷⁾을 느끼게 될 수 있다. 요컨대 수용된 환자들을 한 곳에 몰아넣고 그들에게 필요한 치료와 휴식을 줄 여건도 갖추지 못한 구빈원을 계속 세우는 것과, 불필요한 행정을 간소화하고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 봉사를 제공하는 것 중 무엇이 더 인간적인가? 다음 장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사드가 『철리에트 이야기』에서 실명으로 언급하면서 우정 어린 찬사를 아끼지 않은 로마 출신 의사 주제페 이베르티⁴⁸⁾는 1788년에 『구빈원에 대한 견해』를 출판하는

46) Foucault, *Naissance de la clinique, op. cit.*, p. 38. 프랑스혁명기 국민회의의 재택 구호에 대한 논의와 법령은 Jean Imbert, *Le Droit hospitalier de la Révolution, op. cit.*, pp.76-81을 참조.

47) *Ibid.*, p.39.

48) 사드는 로마 여행에서 만난 한 의사에게 깊은 우정을 느꼈다. 여기서 그는 주석을 통해 이베르티에게 다음과 같은 찬사를 보낸다. “내 영원히 잊지 못할 사랑하는 친구여, 자네에게 이 영예를 바치게 해주게. 내 이 책에서 이름을 감추고 싶지 않았던 단 한 사람이 바로 자네일세. 나는 여기서 자네에게 철학자의 역할을 맡겼는데 자네에게 딱 알맞은 역할이라서 내가 온 세상에 자네 이름을 알렸어도 용서해주어야 하네”(III, 834).

데, 이 책은 위에서 언급한 뒤퐁 드 느무르의 구빈원 개혁안에 화답한 것으로 보인다.⁴⁹⁾ 이베르티는 가택 진료안에 찬성하면서 “정말 현명하고 유익한 체계는 개별진료와 구빈원의 진료를 결합하고 병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합이 잘 이루어지면 경제성과 인류애가 똑같이 존중될 수 있다”⁵⁰⁾고 말한다. 결국 구빈원의 축소와 폐지는 박애의 정신과 가난한 자들에 대한 연민의 감정을 거부하는 것이기는커녕, 18세기 말의 합리주의자들은 오히려 구빈원과 자선시설이야말로 말뿐인 자선과 구휼의 실천을 빌미로 빈곤을 반복하고 재생산하는 반인간적인 제도라고 생각했다.

V. 구빈원을 폐하라!

이와 같은 역사적 상황을 고려해볼 때 사드의 작품에서 연민, 선행, 인류애와 같은 감정의 부정과 구빈원 문제가 단지 사드의 악한들의 악의 옹호를 강조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테르미도르 반동 이후에 출판된 『규방철학』에 냉혹한 악인으로 등장하는 돌망세는 박애 정신의 토대가 기독교 전통에 있음을 폭로하면서 타인에 대한 동정은 결코 자연적인 미덕이 아님을 다음과 같이 분명히 한다.

49) 이베르티가 “최근 파리에서 출판된 한 저작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유일하게 적합한 체계가 가택 진료라는 주장을 읽었던 생각이 난다”(Giuseppe Iberti, *Observations générales sur les hôpitaux*, Londres, 1788, p.9)고 말할 때, 그가 이 저작의 제목은 밝히지 않았지만 내용을 비교해보자면 1786년에 나온 뒤퐁 드 느무르의 논문을 가리키는 것 같다.

50) Iberti, *Observations générales sur les hôpitaux*, *Ibid.*, p.11. 이베르티는 다음의 두 가지 이유를 든다. “[...] car d’un côté, les traitemens domestiques procurant à la charité particulière des moyens de s’exercer, il resteroit moins à faire à la charité publique qui, dans ce cas, pourroit donner plus de soins aux malades des hôpitaux ; & de l’autre, ces hôpitaux subsistant toujours, on n’auroit jamais à craindre que l’affoiblissement du zèle, de la piété & de toutes les autres vertus sur lesquelles porteroit principalement l’activité des traitemens privés, exposât un jour les malades à ne recevoir que des secours ou insuffisans, ou administrés avec froideur.” (*Ibid.*)

La source de toutes nos erreurs en morale vient de l'admission ridicule de ce fil de fraternité qu'inventèrent les chrétiens, dans leur siècle d'infortune et de détresse ; contraints à mendier la pitié des autres, il n'était pas maladroit d'établir qu'ils étaient tous frères ; comment refuser des secours d'après une telle hypothèse ; mais il est impossible d'admettre cette doctrine! [...] je vous demande si cela serait, dans la supposition que les vertus exigées par ce prétendu fil de fraternité fussent réellement dans la nature ; si sa voix les inspirait aux hommes, ils les éprouveraient dès en naissant, dès lors la pitié, la bienfaisance, l'humanité seraient des vertus naturelles dont il serait impossible de se défendre, et qui rendraient cet état primitif de l'homme sauvage totalement contraire à ce que nous le voyons. (III. 98-99)

우리가 저지르는 모든 도덕적 과오는 기독교인들이 저들의 불운과 절망의 시대에 고안했던 박애라는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는 생각을 받아들인 데 그 원인이 있다. 구걸하듯이 타인이 제발 연민을 가져주기를 바랄 뿐이었으니 만인이 모두 형제라고 주장하는 일이 꽤나 그럴듯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가정하면 도움을 어찌 거절하겠어? 하지만 그 교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 소위 박애주의란 것이 필요로 한 미덕이 정말 자연에 존재한다고 가정할 수 있는 것인지 묻겠다. 자연의 목소리가 사람에게 미덕을 불어넣었다면 태어나면서부터 그 목소리를 들었어야 할 거다. 그래야만 연민이니 선행이니 인류애니 하는 것이 자연적인 미덕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랬다면 그 미덕에 저항할 수 없었을 거고, 야만인의 원시 상태는 지금 우리가 보는 바와는 완전히 달랐을 것이다.

사드의 작품에서 갑작스럽게 닳친 불운 때문에 빈곤에 빠진 주인공이 사회에서 어떤 호의와 배려도 얻지 못하고, 기독교의 애덕과 자애를 가차 없이 비판하는 악한들과 마주한다는 빈번한 설정은 소설의 전체적인 구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미덕의 불운』에서 『쥐스틴 혹은 미덕의 불행』을 거쳐 『누벨 쥐스틴』에 이르기까지 사드가 세 번에 걸쳐 개작한 쥐스틴 연작의 여주인공은 끊임없이 “인간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선행과 고결한 감정”에 호소하지만 그녀에게 그런 감정은 “오만에서 나오는 환상적이고 찰나적인 향유”(II, 14 ; II, 143 ; II, 403)에 불과할 뿐이라는 대답

만이 돌아온다. 이후 쥐스틴이 무고한 절도혐의로 감옥에 갇혔을 때, 함께 수감되어 있던 뒤부아 부인은 감옥에 방화하여 그녀와 함께 탈옥한다. 그러나 쥐스틴이 “범죄의 은덕”을 입은 것을 개탄하고 종교의 섭리를 따르겠다는 결심을 말하자 뒤부아 부인은 그런 “이치에 닿지 않는 생각 때문에 당신은 이내 구빈원에 갇히고 말 것”(II, 22)이라고 대꾸한다. 쥐스틴과 반대의 길을 걷는 언니 쥘리에트도 예외는 아니다. 쥘리에트는 그녀를 정부로 삼았던 실력자 누아쇠유의 힘을 좀 빌릴 수 있겠느냐는 뒤베르지에 부인의 부탁에 무심히 응했다가 비세트르 구빈원으로 끌려간다(III, 358). 누아쇠유는 구빈원에 수감된 쥘리에트를 찾아와 그녀를 꺼내주겠다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쥘리에트에 대한 “애정 때문도 아니고 동정 때문도 아니다.” “이기주의만을 행동의 동기로 갖는”(III, 359) 누아쇠유는 단지 쥘리에트가 사형을 당한다면 그녀와의 관계에서 더는 쾌락을 누릴 수 없으므로 그녀를 구빈원에서 꺼내주려는 것이다. 더욱이 쥘리에트는 자신의 무고를 증명하기 위해 주저 없이 무고한 미네트를 희생자로 삼는다. 사드는 상반된 성격과 도덕을 가진 쥐스틴과 쥘리에트 자매를 모두 구빈원에 밀어 넣지만, 한 사람은 미덕과 자애에 호소하면서 그곳에 남으며, 다른 사람은 잠시나마 미덕의 충동에 따랐던 것을 후회하고 잔혹한 이기심으로 다시 무장할 때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 아니라, “구빈원을 위해 쓸 1만 에퀴”를 받게 될 것이다. 그 때문에 정작 구빈원에 수용된 “병자들은 죽을 덜 먹게 될”(III, 364) 테지만 말이다.

『규방철학』의 돌망세, 『쥘리에트 이야기』에 나오는 프랑스 장관 생퐁과 로마 경찰청장 기지 등은 한결 같이 구빈원과 자선시설이 빈곤의 해결책이기는커녕 “인민을 나태에 빠뜨리고 활기와 근면을 저해”한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이들이 주장하는 구빈원의 완전한 폐지는 자선시설의 방화로 귀결하기까지 한다.

[...] les vertus qui ne font que des ingrats [...] la bienfaisance est bien plutôt un vice de l'orgueil, qu'une véritable vertu de l'âme ; c'est par ostentation qu'on soulage ses semblables, jamais dans la seule vue de faire une bonne action [...] [La bienfaisance] accoutume le pauvre à des secours qui détériorent son énergie, il ne travaille plus quand il

s'attend à vos charités, et devient, dès qu'elles lui manquent, un voleur ou un assassin. [...] Voulez-vous ne pas avoir de pauvres en France, ne distribuez aucune aumône, et supprimez surtout vos maisons de charité. (III, 32)

미덕은 사람을 배운망덕하게 만들뿐이다! [...] 선행이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덕이라기 보단 오만에서 나오는 악이라고 하겠다. 사람들이 타인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은 과시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결코 좋은 행동을 하려는 생각만으로 그러는 게 아니다. [...] 선행은 고작해야 가난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는데 익숙하게 만드는 일이다. 도움을 받으면 에너지를 잃게 되는 거야. 가난한 사람이 적선을 기대하게 되면 더는 일을 하지 않고, 적선을 안 해 주면 강도나 살인을 하게 된다. [...] 프랑스에 극빈자들이 없었으면 하지? 그럼 적선을 하면 안 된다. 사방에 널려 있는 자애소(慈愛所)를 싹 쓸어버려야 한다.

[...] je [Ghigi, le maître de police] regarde les hôpitaux comme la chose du monde la plus dangereuse dans une grande ville ; ils absorbent l'énergie du peuple, ils entretiennent sa fainéantise, ils amoïssent son courage ; ils sont pernicieux en un mot, sous tous les rapports ; le nécessaire est à l'Etat ce qu'est la branche parasite à l'arbre fruitier ; elle la dessèche, elle se nourrit de sa sève, et ne rapporte rien. [...] Soyez sûre que le mendiant, toujours nuisible, non seulement profite de la part d'un homme utile, ce qui est déjà un vice dans l'Etat, mais deviendra lui-même bientôt dangereux si vos aumônes viennent à lui manquer : je veux que loin d'en donner à de tels malheureux, on ne s'occupe, au contraire, qu'à les extirper totalement ; je veux qu'on les détruise [...]. (III, 831-832)

저는 구빈원을 대도시에서 가장 위험한 것으로 봅니다. 구빈원은 인민의 에너지를 빨아들이고, 게으름을 부추기고, 용기를 약화시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어느 모로 보나 해롭습니다. 가난뱅이는 국가로선 쳐내야 할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나무를 시들게 하고, 양분을 빨아들이는 데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 걸인은 항상 해로운 존재로, 유용한 사람들의 이익에서 이득을 보지요. 그것만으로도 벌써 국가에는 악입니다만, 여러분의 적선을 받지 못하게 되면 스스로 위험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불행한 인간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니 차라리 그들을 송두리째 뿌리 뽑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모조리 죽여 버렸으면 하는 겁니다 [...].

『규방철학』과 『쥘리에트 이야기』에서 다소 길게 발췌한 위의 두 인용문은 사드의 극악한 리베르탱들이 구빈원에 가졌던 적대적인 증오를 여실히 보여준다. 물론 위의 인용문만을 놓고 볼 때 특권을 가진 부유한 악한들이 어떤 동정도 어떤 연민도 느끼지 않으면서, 그들의 사악한 이기심(isolisme)을 강변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은 연민과 동정의 감정과 자애와 애덕의 실천이 자연이 피조물에게 심어 준 본성과 거리가 멀며, 따라서 이런 감정에 호소하는 것으로는 구체제를 위기에 몰아넣었던 심각한 정치경제적인 문제로서의 빈곤을 해결할 수 없다는 동시대 이론가들과 의견을 같이한다. 더욱이 이들이 공히 지적하는 두 번째 문제는 구빈원과 자선시설이 인민의 ‘에너지’, 즉 활력을 잃게 하며, 따라서 오히려 국가의 번영에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에너지라는 말은 “경제 활동과 노동력”(I, 1333)과 관련된 것으로, 미셸 푸코가 18세기 말에 그전까지 사회로부터 격리되었던 빈곤층이 경제와 사회활동에 재통합되기 시작한다는 주장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 빈곤은 부의 독점에 기인하고, 극빈층의 무기력은 권력의 압제에 비례한다. 사드의 악한들이 주장하는 강자의 원리는 약자는 도태하기 마련이라는 비판적 결정론의 반복이라기보다, 압제에 길들여진 약자는 강자의 변덕스럽고 일회적인 자선에 의존하는데 익숙해지므로 그의 상황과 조건을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를 완전히 잃게 된다는 데 있다. 여기에 사드의 악한들의 ‘철학논의’의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그들은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의 특권을 위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한편, 무기력과 나태에 젖어 강자의 시혜만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증오한다. 사드가 프랑스혁명 직후에 출판한 『알린과 발쿠르』에는 이러한 동시대 빈곤의 문제가 훨씬 완화된 어조와 철학적인 입장으로 정리되어 있다. 아래의 인용문은 데테르빌이 한 사제와 나눈 빈곤 문제의 토론인데, 동시대 빈곤의 문제를 정확히 요약하고 있으므로 길게 인용해 볼 가치가 있다.

Vous ne voulez pas voir les mendiants en France, n'épuisez pas le malheureux cultivateur par des taxes au-dessus de ses forces, ne foulez pas vos fermiers, afin d'être plus en état de broder vos habits et de pomponner vos cheveux ; et les mendiants, malheureuses excrescence de tous ces abus, ne fatigueront point vos regards ; mais ne les bannissez pas, ne les molestez pas par une pitié barbare et insultante ; ne les engouffrez pas comme des cadavres dans des sépulcres d'horreur et de fétidité ; songez qu'ils sont hommes comme vous, que le même soleil les éclaire et qu'ils ont droit au même pain... Vous ne voulez pas de mendiants! n'engloutissez pas dans la capitale les ruisseaux d'or de vos provinces ; que la circulation soit libre, et la dose du bonheur équitablement répartie sur chaque citoyen ne vous monterera plus, l'un au pinacle et l'autre sous les haillons de sa misère [...]. (I, 446)

당신은 프랑스에 걸인이 없기를 바라죠. 그러면 저 불쌍한 농민을 그의 힘을 넘어서는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시면 안 됩니다. 소작인들을 짓밟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누가 의복에 수(繡)를 놓고 누가 머리 치장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구걸하는 사람들, 당신이 모든 악습에서 자라난 저 불행한 흑들을 보면서 시선이 피곤해져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그들을 내쫓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야만적이고 모욕적인 연민으로 괴롭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공포와 악취로 가득한 무덤 속에 시체를 던져 넣듯 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도 당신과 같은 인간임을 명심하세요. 똑같은 태양을 받고 똑같은 빵을 먹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걸인이 없기를 바라신다구요! 지방에서 올라온 황금으로 물처럼 왕국의 수도를 잠기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유롭게 유통되도록 해야죠.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행복의 몫을 공정하게 나누는 데는 더는 관심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한 사람은 절정에 올라 있지만 다른 사람은 빈곤의 누더기에 감싸여 있지요 [...].

사드는 빈곤의 결과로 에너지를 잃고 무기력과 나태에 빠진 인민들에게 분노하고 저주를 퍼붓지만, 빈곤의 원인이 특히 전제군주의 압제와 부의 독점에서 온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쥘리에트 이야기』에서 여주인공 쥘리에트는 나폴리 왕 페르디난도 4세에게 왕국에 퍼져있는 빈곤의 원인이 바로 국왕의 잘못된 정책에 있음을 강조한다. “자연이 나폴리

인민에게 많은 걸 주긴 해도, 인민은 그걸 누리지 못하다시피 해요. 하지만 그건 나폴리 인민이 무기력해서가 아니에요. 인민을 마비상태에 빠뜨리는 건 당신의 정책 때문이에요. 인민이 노예 상태를 벗어날 수 없도록 부(富)를 누릴 수 없게끔 곳간의 문을 잠가버린 정책 말이죠. 그 정책에 따르면 인민의 병에는 약이 없고 국가 상황은 시민정부와 비교해 폭력성이 덜 하지 않아요. 정부에 결함이 있으니까 무력을 행사하기 때문이죠. [...] 그러니까 무지를 조장하고 인민에게 아편을 먹이고 계시는 것 아니세요. 그 수면제로 인민을 마비시켜 당신이 상처를 받기받기 찢어놓는데도 그걸 느끼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 아닌가요”(III, 1021). 쥘리에트가 말하는 ‘마비상태(engourdissement)’가 바로 압제자의 노예가 되어버린 인민의 ‘에너지의 감소’의 결과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VI. 결론

국가는 빈곤의 해결책으로 구호시설을 확대하고 자선을 위한 예산을 늘려야 하는가? 현대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구빈 문제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입장과 국가의 인위적인 개입을 최소화하는 입장이 대립하는 것처럼, 18세기 후반에도 구빈원으로 대표되는 자선사업의 필요와 불필요를 주장하는 상반된 입장이 대립했다. 프랑스혁명기에 구빈원 폐지안을 지지했던 입장은 분명 자선시설의 경영합리화와 사회적 경비의 축소를 바랐던 부르주아 제3계급이 공유했던 이데올로기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당시의 구빈원 및 자선시설이 구체제의 모순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한 가지 상징으로 보았고, 따라서 새로운 공화주의 정부가 국왕 및 대귀족의 시혜(施惠)와 기독교 단체의 공홀(矜恤)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빈민 구제 정책을 요청했던 것도 당연한 일이다. 프랑스혁명과 함께 잠시나마 자유를 얻고,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피크 지부에 참여하게 된 사드는 당시 긴급하게 제기되었던 구빈원 문제에 답하면서 그의 짧은 정치활동을 시작했다. 본 논문은 사드가 쓴 보고서에서 지적된 구체제 구빈원 운영의 폐해와 이에 대해 그가 제시한 소략한 대안이 사드의 다른

소설 작품에서 빈번히 등장했던 구빈원과 사회적 빈곤 구제의 문제와 함께 이해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루었다. 이기심으로 무장한 사드의 리베르탱들은 단지 극빈자들을 제거해 버릴 때 빈곤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했는가? 오히려 사드는 구체제 구빈원 정책이 프랑스혁명 이후의 새로운 사회의 이상과 모순되며, 이 낡은 정책이 다시 도입된다면, 이미 추방해 버렸던 종교와 전제주의의 유령이 다시 돌아오기란 시간 문제일 뿐임을 경고한다. 그리고 적어도 이점에서 사드는 틀리지 않았다. 테르미도르의 반동 이후 로베스피에르가 실각하고 들어선 총재정부에서는 다시 구체제 구빈원 제도를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하기 시작했고, 사드는 결국 그렇게 다시 문을 연 사랑통 구빈원에 다시 수감되어 그와 함께 갇힌 광인들과 함께 인생을 마치게 되었으니 말이다.

■ 참고문헌

- Bescond, Jacques, *Une construction de la clinique. Le savoir médical au XVIII^e siècle*, Paris, L'Harmattan, 2010.
- Blanchot, Maurice, *Lautréamont et Sade*, Paris, Eds de Minuit, 1963.
- Coquéau, Claude-Philibert, *Essai sur l'établissement des hôpitaux dans les grandes villes*, Paris, 1787.
- Delon, Michel, <Dix années d'études sadiennes>, dans *Dix-huitième siècle*, n° 11, 1979.
- _____, *L'Idée d'énergie au tournant des Lumières (1770-1820)*, PUF, 1988.
- _____, <De La Rochefoucauld à Sade, la moral d'un immoraliste>, dans *La Morale des moralistes*, éd. par Jean Dagen, Paris, Honoré Champion, 1999.
- _____, *Les Vies de Sade*, Paris, Eds. Textuel, 2007.
- _____, *Le Principe de délicatesse. Libertinage et mélancolie au XVIII^e siècle*, Paris, Albin Michel, 2011.
- _____(et al.), *Sade, un athée en amour*, Paris, Albin Michel, 2014.
- Deprun, Jean, *De Descartes au Romantisme. Etudes historiques et thématiques*, Paris, Vrin, 1987.
- Dupont de Nemours, Pierre-Samuel, *Idées sur les secours à donner aux pauvres malades dans une grande ville*, Philadelphie [Paris, Moutard], 1786.
- Foucault, Michel, *Naissance de la clinique*, PUF, 1963.
- _____, *Histoire de la folie à l'âge classique*, Gallimard, 1972.
- Gaillard, Michel, *Le Langage de l'obscénité. Etude stylistique des romans de Sade : Les Cent ving Journées de Sodome, les trois Justine et Histoire de Juliette*, Paris, Honoré Champion, 2006.
- Iberti, Giuseppe, *Observations générales sur les hôpitaux*, Londres, 1788.
- Imbert, Jean, *Le Droit hospitalier de la Révolution et de l'Empire*, Paris,

1954.

Jeangène Vilmer, Jean-Baptiste, *Sade moraliste. Le dévoilement de la pensée sadienne à la lumière de la réforme pénale au XVIII^e siècle*, Genève, Droz, 2005.

Klossowski, Pierre, *Sade, mon prochain*, Eds. du Seuil, 1967.

Le Brun, Annie, *Les Châteaux de la subversion*, Gallimard, 2010.

Lely, Gilbert, *Vie du marquis de Sade*, Mercure de France, 1989.

Lever, Maurice, *Donatien François, marquis de Sade*, Paris, Fayard, 2003.

Sade (Donatien-Alphonse François de), *Œuvres complètes*, Paris, Jean-Jacques Pauvert, 1966, 30 vol.

_____, *Œuvres*, éd. Michel Delon, Gallimard, Bibliothèque de la Pléiade, 1990-1998, 3 vol.

Recalde (Abbé de), *Traité sur les abus qui subsistent dans les hôpitaux du Royaume et les moyens propres à les réformer*, Paris, Didot, 1786.

Sclippa, Norbert (sous la dir. de), *Lire Sade*, Paris, L'Harmattan, 2004.

Starobinski, Jean, *L'invention de la liberté 1700-1789. Les emblèmes de la Raison*, Gallimard, 2006.

Dictionnaire de l'Ancien Régime, sous la dir. Lucien Bély, PUF, 1996.

Dictionnaire européen des Lumières, sous la dir. Michel Delon, PUF, 1997.

❖ ABSTRACT

“The Burning of Hospitals”:
Sade's Thoughts on Hospitals from the Ancien
Regime to the End of the 18th Century

Lee, Choong Hoon

The villainous characters of the Marquis de Sade do not regard pity and consternation that one usually feels at the sight of poor people as natural. Such feelings are simply rejected. Therefore, Sade's characters immediately suggest that the hospitals established by religious congregations under the Ancien Regime should disappear. However,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enlightened thinkers are aware of the abuses caused by hospitals at that time, claiming that they are to be blamed for the worsening situation of the poor. Thus, the General Assembly of the Constituents tried to nationalize the possessions of the hospitals, going as far as abolishing every charity institution.

This article aims at linking Sade's hatred for hospitals to the issues his contemporaries raise about charity institutions. More particularly, revolutionary thinkers want to replace the considerably rich hospitals with small hospices or domiciliary care. Such actions will help reduce national budget spending and simplify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Sade's libertines view poverty issues in the society from different perspectives: philosophical, political and economic. Let us not forget that they insist on social assistance systems which would suit both the ideals and the circumstances of the new Republic. We understand that Sade took precautions against the impending return of religion and monarchy, which were expelled by the Revolution. Under the Ancien Regime, people tolerated hospitals on the pretext that they arouse natural feelings such as beneficence and compassion. Well, to say the least, Sade is not wrong in raising awareness on this issue.

Key Words : Donatien-Alphonse-François de Sade, hospital, the French Revolution, Piques section, Michel Foucault, poorhouse

■ 논문접수일 : 2017. 02. 10

■ 심사완료일 : 2017. 03. 01

■ 게재확정일 : 2017. 03. 03

